

“한·중·일 전자·IT 유통업계 한자리에” - “Asian Retailer's day” 10월 개최기로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www.epartshub.com)는 6월 25일 중국과 일본의 각각 전자마켓플레이스 1위 업체인 Hua Qiang Bei(www.hqew.com)와 Chip1stop(www.chip1stop.com)과 “한중일 전자·IT 유통 Market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간의 전자유통시장 정보 교환 및 전자IT부품 DB를 연계키로 하는 한편 각 국가에서 상대방에 대한 Buying Office 역할을 하며 현지 국내 부품 아웃소싱 및 Network 구축을 상호 지원키

로 했다. 3국은 또한 이러한 협력을 기초로 향후 시장 수요가 있는 품목의 경우 직접 생산 및 마케팅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리는 한국전자전(KES) 기간 중 3국 유통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 “Asian Retailer's day”를 개최하고 3국간 완제품 및 부품의 실거래 확대 및 “전자·IT 유통 Market”에 대한 향후 협력체제에 관한 MOU를 체결키로 했다.

3국은 또한 전자상거래 협력과 관련 올해 안에 3국간 전자부품 데이터베이스를 교환하고 본격적인 e-마켓플레이스 협력을 추진하여 전시회와 유통시장, 전자상거래를 통합하는 최초의 차세대 통합마켓플레이스 모델로 협의체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분쟁예보제 품목 발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특허지원센터는 15일 서울 상암동DMC 전자회관에서 국내 기업들이 특허분쟁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특허분쟁예보제 사업의 주요 품목을 발표회를 개최했다.

특허지원센터는 국제특허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특허분쟁예보제 사업을 실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특허분쟁예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해당 품목의 동향, 시장동향, 특허분쟁 현황은 물론, 분쟁 가능성 및 분쟁 예상 시기, 분쟁 예상 지역까지 담고 있다.

특허지원센터는 이번 발표회에서 품목 예보 보고서 중 분쟁이 빈번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 10개를 선정했다. 특히 선정 품목 중 내비게이션, 이동통신안테나, 의료용 영상장비,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은 특허지원센터에서 예보한대로 분쟁이 발생했다.

특허지원센터의 조규재 센터장은 “국제특허분쟁의 발생 빈도는 늘고 강도도 거세지고 있어 우리 기업이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는 분쟁예보 품목 수를 50개로 확대해 특허분쟁예보사업의 수혜기업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